



장마 주춤... 햇살속 자전거행진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19일, 광주 북구 산동교 아래 자전거 교육장에서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손 부족 농촌들 '원정일손' 줄짓는다

양파·매실 생산농가 광주 등지서 '인력 모시기' 경쟁

장마철 인건비 폭등에 농가 '울상'... 안전사고 위험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남 농촌지역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부족한 일손을 광주 등 외지에서 끌어쓰면서 이른바 '원정 일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마를 앞두고 인건비가 치솟는 바람에 현지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다 외지에서 인부를 싣고 농촌을 오가는 차량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화와 인구부족 원인=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양파는 1만

124ha에서, 마늘은 8895ha에서 재배 중이다. 양파로 유명한 무안군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양파 재배 면적은 3647ha(약 1103만평)에 재배 농가수는 3513세대며, 마늘은 896ha(약 271만평)를 2698세대가 관리하고 있다.

양파 수확은 땅에서 작물을 캐고 20kg씩 망에 넣은 뒤 저온 창고에 보관하는 농도가 필요한 만큼, 60~70대 노인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안지역 농가들

은 대부분 외지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농번기엔 목포와 광주, 함평 등지에서도 일력을 '모시고' 오는 것이 현실이다.

양파의 경우, 일 인당 하루 일당이 7~8만원 선이지만, 최근에는 13~15만원까지 치솟았다. 수확한 양파를 망에 넣는 일은 망 한 개 당 1100원~1200원을, 남자의 경우 양파를 창고로 옮기는 일에 망 한 개 당 600~700원을 받는다. 이들 중에는 하루 2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인력소개소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막상 현지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양파는 장마 전에 수확하지 않으면 노균병이나 시들음병에 걸릴 가능성이 커져 수확량이 약 영향을 미치는 데, 올해는 양파 수확 시기가 동

해(寒害·추위로 농작물이 얼어붙어 피해를 입는 현상)로 늦춰진데다 설상가상으로 장마도 지난해에 비해 일주일 가량 빠르기 때문이다.

무안의 한 농가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외부에서 인력을 쓰고 있는데, 평소의 2배에 달하는 인건비가 나가니 타격을 클 수밖에 없다"며 "출하 시기에는 물량도 많아져 가격도 내리고, 요즘은 노균병 때문에 20kg 한 망에 10% 정도가 썩어버려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상 수확해도 남는 돈은 얼마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6월 초부터 매실을 수확해 출하하는 순천 지역도 일손 부족으로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매실을 따려면 6월 말까지는 수확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 외지의 가족까지 와서 일을 거드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잇따라= 원정일손의 또 다른 문제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 15일 오후 6시10분께 동무안 IC 인근 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25인승 버스가 넘어져 양파 수확 작업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가던 40~70대 여성 등 승객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새벽 6시10분께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산월 IC 인근 교차로에서 45인승 관광 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광주에서 고창으로 일을 도우러 가던 60~70대 여성 등 33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8분 / 해질 19시 50분 / 달뜨기 16시 15분 / 달지기 02시 12분

당분간 더운 날씨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1/30℃
목포	구름많음	20/28℃
여수	구름많음	20/27℃
나주	구름많음	20/30℃
완도	구름많음	21/29℃
구례	구름많음	21/31℃
강진	구름많음	21/29℃
해남	구름많음	21/30℃
장흥	구름많음	21/29℃
순천	구름많음	19/29℃
영광	구름많음	19/28℃
진도	구름많음	20/27℃
전주	맑음	20/32℃
군산	맑음	19/28℃
남원	맑음	19/31℃
홍산도	맑음	19/25℃

지역	기상	최저/최고
서울	구름	22/30
인천	구름	20/29
대전	구름	20/27
전주	구름	19/29
광주	구름	20/30
부산	구름	20/30
대구	구름	20/30
울릉도	구름	20/30
독도	구름	20/30
제주도	구름	20/30
목포	구름	20/30
여수	구름	20/30
순천	구름	20/30
김령	구름	20/30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최저/최고	22/30	20/29	20/27	19/29	20/30	20/30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어찌할꼬'

주민들 "시끄럽다" 민원 제기

구청 "소음 규정에 포함 안돼"

광주시 북구 삼각동 주민들이 여름 불청객들로 인해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인근 눈에 집단으로 몰려 있는 황소개구리 때의 울음소리 때문이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장마철을 맞아 울음 소리가 더욱 커지면 주민들은 "못 살겠다"며 관할 구청에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 북구 삼각동 서러이파트 101동 입주민은 19일 북구청에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더위도 시끄러워 창문을 열 수가 없게 만들고, 밤에는 음산하기까지 한 울음소리로 산책조차 꺼리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다. 주민이 지목한 원흉은 황소개구리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아파트에서 50m 가량 떨어진 인근에 서식하는 황소개구리 울음소리가 부쩍 커져 일상 생활이 곤란할 정도

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주민의 입장이다. 매년 여름이면 겪는 연례 행사지만 올해는 더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창문을 닫지 않으면 TV를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다.

고 3 수험생 자녀를 둔 주민들은 "신경이 예민한 자녀가 황소개구리 울음소리로 인해 비만 오면 공부를 포기할 정도"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소음 측정 뒤 적절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구청 측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북구청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자연 동식물 소리는 소음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황소개구리를 포획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 '홍매화'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1980년 5·18 당시 전남대 교정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지켜본 400년 된 대명매(大明梅·홍매화)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주시 북구는 지난 4일 전남대 대강당 앞 동산에 심어진 직경 58.5cm, 높이 4.2m의 대명매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 '대명매 천연기념물 지정가치 검토 보고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이 검토 보고서엔 대명매의 유래(스토리)와 특징, 수세(樹勢·나무가 자라나는 기세 또는 상태), 생육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명매는 의병장 고경명의 손자 고부천이 1620년 중국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황제(광종)가 급사한 것을 알고 예를 갖추어 위로한

복구청, "지정가치 있다" 문화재청에 보고서 제출

점을 인정받아 광종의 아들인 회종으로부터 받은 상이다.

고부천은 1년 후 담양군 장평면 자신의 집 정원에 대명매를 심었으며, 고부천의 12세손인 고재천 박사(당시 전남대 농대학장)가 1961년 전남대에 기증했다. 1976년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특히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전남대 교내로 진입하면서 많은 나무가 고사했으나 대명매만은 매운 최루탄 가스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알코올성 간 손상 관련 단백질·역제 물질 규명

전남대·생명연 연구팀

전남대 최홍식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철호 박사 주도의 연구팀이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 손상을 핵심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이를 억제하는 물질을 밝혀냈다. 알코올성 간 손상 치료제 개발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지방간과 일부에서는 알코올성 간염이 나타나는데 염증이 심화하면 간경변 증세까지 일어난다. 현재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간경변의 유일한 치료법은 간 이식뿐이다.

간경변 치료제가 없는 이유는 간경변 유발 분자기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가 간 손상의 원인으로 알려지기는 했으나 이 알코올 분해효소의 상위에서 어떤 단백질이 기능하는 지 구체적인 기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축복 받은 집”

씨푸드 뷔페 엘리시아

새롭게 태어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새로운 감각으로 탄생한 스페셜 메뉴
행복하고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드립니다!

구분	平日		주말, 공휴일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성인	23,000	27,000	30,000	33,000
초등학생	12,000	14,000	15,000	17,000
유아 (48개월이상)	7,000	9,000	10,000	12,000

위 금액은 VAT 포함가격입니다.
홈페이지(www.elysia.co.kr)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항상 10%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할인 이벤트 진행중 (홈페이지 참조)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완성되는 곳!

엘리시아 컨벤션 웨딩홀 (나주점)

☎ 061-332-1111

- 150석 규모 웨딩홀
- 100석 규모 연회장
- 50석 규모 연회장

전국꽃배달서비스 365일 24시간
www.flowerelysia.co.kr

엘리시아 컨벤션 안내 (별관)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과 차별화된 음식으로 초대되신 분들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60석 80석 100석
120* 대형 빅프로젝트 및 맞춤형식판

결혼 피로연 / 각종 세미나 / 워크샵
돌잔치 / 회갑 / 칠순연

이용요금 ₩27,000~₩33,000

나고야

제철음식 일식전문점
엘리시아 협력업체

예약전화(초밥 포장 및 배달가능)
☎ 385-9696
상무병원 응급실 건너편 / 주차장 완비

엘리시아 꽃배달 OPEN기념 이벤트!

꽃, 화분 등 5회 이상 주문시 [5만원 이상]
엘리시아 상품권 5만원권 증정

꽃 + 엘리시아 식사권 묶음 상품
30% 할인판매 "엘리시아 꽃배달" 홈페이지에서 구입가능

정식특선

참조기탕 12,000원
생우렁탕 12,000원
대구탕 15,000원
생선초밥 12,000원
특초밥 15,000원
생선구이 15,000원
굴비정식 20,000원
나고야정식 25,000원

정식코스요리

A코스 40,000원
B코스 50,000원
C코스 60,000원
(1인기준 2인이상)

주말 가족특선
4인 한상차림 100,000원
(토요일, 공휴일에 한함)